

요셉이 형들을 모른채 하다 창세기 42:1~17

**용서한 형들임에도 모른 척 하며 회개를 끌어내는 요셉
죄의 실상 드러내서 깊은 회개 통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은 드디어 그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감안하고 생각해 봐도 있을 수 없는 일로서 하나의 기적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가리켜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총과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러한 꿈을 꾸고 믿음을 갖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음을 몇 번씩 경험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고아처럼 버려진 요셉. 그리고 나쁜 여자의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생활로 20대를 보냈던 요셉.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영광스러운 애굽의 총리대신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얻는 복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똑똑하고 잘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을 때, 그의 지혜와 총명과 인격이 살아났고, 그의 삶 속에는 복이 있었습니다.

복받을 수 있는 많은 은총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죽여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살려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꿈을 먹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어느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어느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나가는 사건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언젠가는 그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환경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도, 억울할 때도, 분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미울 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복의 씨앗입니다.

요셉의 인생철학은 성실입니다. 그는 어느 곳에서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익을 볼 때나 손해를 볼 때나 그의 성실함과 신실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회도 옵니다. 요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나가는 수많은 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붙드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명철함'과 '지혜'입니다. 왜 명철했을까요? 영이 맑고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이 깨끗합니다. 영이 맑은 사람은 사물을 분명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명철함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해력을 주십니다. 이 명철함과 지혜는 요셉이 바로 왕의 꿈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

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명철함과 지혜가 흘러 넘치기를 축원 합니다.

요셉의 또 다른 특징은 복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에 내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깊는데, 단순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는데 단순한 것입니다. 요셉은 30세에 총리대신이 되었지만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격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높아졌다고 교만하지 않고, 낮아졌다고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대신이 되었을 때나 그의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인격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대신 이후에, 꿈에 계시된 대로 7년 대 풍년이 옵니다. 창고를 짓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하게 됩니다. 꿈의 예언대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왔습니다. 요셉은 흉년이 오자마자 애굽 사람들에게 창고를 열어 준비한 양식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흉년이라고 해도, 준비된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서는 고통이 아닙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근은 애굽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도 이 기근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배후의 손길

41장 57절부터 보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도 이 기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도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을 걸고 이방 나라까지 가서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긴박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42장 1, 2절을 보십시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이 살고 있는 땅에 극심한 가뭄이 생겨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시작됩니다. 기근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이 하나님 손에 주어지면서부터 놀라운 섭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무서운 기근을 이용해서서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요셉도, 요셉의 형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사건이 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 십 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던 사람들은 야곱의 요셉을 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던 아들 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들은 결코 요셉을 잊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숨기고 있을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책감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는 등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계속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상처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 7절을 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몇 가지 발견합니다. 열 명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17세 소년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고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몰랐습니다. 요셉일 줄은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이상한 장소에서 이상한 이유로, 이상한 해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일까요? 요셉과 그 형들을 만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형들에게 당한 배신입니다. 요셉은 의인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기에 이 일들을 다 용서하고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잊어 버리고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문제는 살아있습니다.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요셉의 형들은 모르는 척, 잊어버린 척,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사건에 대한 죄책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것이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세월이 간다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간다고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간다고 우리들이 저지른 죄가 묻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앙금, 죄책감이 술 마신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두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억울한 누명과 고난을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억울한 사람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누명을 쓰고 살게 하시는가? 왜 내게 수치를 주시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숙제는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총리대신이 되어 누명을 벗게 됩니다.

두 번째 숙제는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일방적으로 용서했지, 만나서 화해의 관계를 갖지 않았기에 요셉에게는 이것이 숙제로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형들을 만나서 가슴을 열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형들은 동생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해결되지 않는 일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 왔습니다. 앙금이 있습니다. 용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안됩니다.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 개입하십니다. 용서를 하지 못해서 앙금이 생겨 고통의 세월을 보낸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야곱이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두려움, 무서움, 불안의 고통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지 않으면 해답이 없기 때문에 부인과 아이와 가족들을 데리고 원수 같은 형 에서를 만나러 옵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자신의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러 떠나는 것입니다.

너무 그 고통이 커서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야곱은 하나님까지 만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보자마자 무엇이라 합니까?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형은 이미 용서를 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야곱과 같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경우는 형들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찾아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근이 왔습니다. 그들은 쌀을 구하러 할 수 없이 애굽으로 왔다가 생각지도 않게 요셉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상식과 머리로 계획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섭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남’입니다. 내가 왜 이 여자를 만났는지, 이 남자를 만났는지, 섭리로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예수 믿는 여자가 시집와서 시어머니와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더니, 드디어 가족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 이런 것이 섭리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나온 고통과 방황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만나러 오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섭리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서는 자연현상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쟁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이용하기도 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꿈에도 요셉을 이런 자리에서 만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애굽에 가는 상인들에게 판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 문제를 피해보고 싶고 잊고 싶었던 것처럼,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잊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매일 밤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힌 것처럼, 사람들은 웬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통하여 요셉에게로 요셉의 형들을 몰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앞으로 몰고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줄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자신들 앞에 요셉이 있었지만 요셉을 몰랐던 것처럼, 내 앞에 예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원자가 계셨지만, 몰랐던 것입니다. 이 두 관계가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금방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뿐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모른체 한 것에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요셉이 형들을 아는 체 했다면 그들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참회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참회하기도 전에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들은 과거를 깊이 참회할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을 용서했다고 말하면 형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저놈이 언제 나에게 보복하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아는 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게 하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회개와 참회를 하게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기 전 하나님이 “네 죄 용서했다”고 하시면, 그 사람은 참회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깊은 참회와 회개와, 내 인생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 가십니다.

드러난 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왜 나를 골탕먹이시나? 빨리 해결해 주시지, 왜 이렇게 똥을 들이시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못했는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 아닙니까? 요셉은 형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9~13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곧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이라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심이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여서 형들이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말은 진실입니다. 고난을 겪으면 진실은 통하게 됩니다. 압력을 받으면 진실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은 계속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요셉은 그들의 말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15~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의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삼 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더욱더 기막힌 고난에 빠져 점점 잊어버렸던 요셉에 대한 사건을 토해내게 됩니다. 이것이 내적치유입니다. 기억하기 쉽지 않은 비밀들을 고백하고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춰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숨겨지고 잊혀진 죄를, 말하고 싶지 않은 죄를 하나씩 하나씩 들춰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복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문제는 해결이 되지않고, 어려운 일들이 가중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것을 내어놓지 않고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벌거벗고 난 뒤에야 요셉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모습은 비정하거나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용서와 자유를 체험하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몰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지시고, 숨은 죄악을 토하게 하시고, 잊고 싶었던 과거를 회상시켜서 그 죄악을 씻으시고, 덮어주시고, 치욕스럽던 과거를 다시 만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로 끝나면 안됩니다. 내 속에 뿌리 깊은 죄악을 뿌리채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모든 죄악의 뿌리를 송두리째 드러내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와 구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진정한 참회, 용서, 감격, 기쁨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죄에 대하여, 내 과거에 대하여 깊은 참회의 고백을 드러야 합니다. 얼마나 깊은 참회의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아무런 아픔 없이 구원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밤에 내가 잊어버리고 싶고,
잊고 있었던 모든 죄악의 뿌리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용서받게 도와주시고,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